



미국 내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판매 및 수출은 최근 지속 증가 중

〈보도 주요내용〉

5.5.(금) 채널A 「테슬라보다 비싼 기아... 韓 전기차, 판매량 반토막」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였으며, 이는 IRA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미국에서 일부 국산 전기차 차종의 '23.4월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였지만, 미국시장 내 국산 친환경차*(IRA 세액공제 대상 : 전기차·수소차·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) 전체 판매는 같은 기간 약 15% 증가**하였는 바, '22.8월에 발효된 IRA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.

* 총 14개 차종 : 전기차 8개, 수소차 1개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개

** 친환경차 판매량(대) : ('22.4) 7,779, ('23.4) 8,959

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IRA 발효('22.8월) 직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, '22.12월부터는 5개월 연속 증가*하고 있으며, 지난 4월 판매량은 IRA 발효 이후 판매량으로는 최고치(역대 2위**)를 기록하였습니다.

*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량(대)

('22.8) 5,452 → ('22.9) 4,031 → ('22.10) 4,425 → ('22.11) 3,816 → ('22.12) 5,030
→ ('23.1) 5,270 → ('23.2) 6,588 → ('23.3) 7,486 → ('22.4) 8,959(잠정)

** 역대 최고는 아이오닉5·EV6 신차출시 효과가 극대화된 '22.3월(10,041대)

이에 따라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, 對美 친환경차 수출역시 '22.11월부터 6개월 연속 1만 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(출처 : 완성차 업계, Wards Intelligence 등)

('22.8) 7.7% → ('22.11) 4.8% → ('22.12) 5.1% → ('23.1) 6.5% → ('23.2) 7.3% → ('23.3) 7.4% → ('23.4) 8.5%

특히 북미조립·배터리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*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(렌트·리스) 판매비중은 사상 최초로 30%를 돌파**하여, 우리 업계에서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

* 정부는 IRA 발효 직후 세액공제 대상 상업용 친환경 차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, '22.12월 수혜대상에 포함 확정

** 상업용 판매비중 : ('22년) 약 5% → ('23.1) 25.3% → ('23.2) 29.8% → ('23.3) 29.8% → ('23.4) 34.7%

일부 차종(아이오닉5, EV6)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신차 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것으로써 향후 우리 업계에서는 추가 신차 출시, 상업용 판매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미국시장 출시 : 아이오닉5 '21.12월, EV6 '22.2월, 아이오닉6 '23.3월

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업계 미국 내 전기차 판매·수출시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산업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최보선	(044-203-4320)
		담당자	주무관	권재환	(044-203-4323)

